

JET からの手紙

JET は自分の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

元島根県松江市国際交流員 林 慶眞 (イム・キョンジン)

私は、国際交流員として 2005 年から 2010 年まで島根県松江市国際交流課で勤務し、今は韓国の坡州市で日本との国際交流に関する業務を担当しています。約 13 年間に渡って日韓交流の分野で活動を続けてこられたのは、国際交流員の経験のおかげだと思います。

私が国際交流員になりたいと思ったきっかけは、留学生の時に松本 NHK 文化センターで韓国語を教えた時でした。韓国文化や韓国語を教えることにやりがいを感じ、生徒たちの熱心な姿に心を打たれ、今後も日韓交流に関わりたいと思い挑戦することとなりました。

東京での研修が終わり、所属先である松江市に移動する際に感じた感情を未だに忘れられません。目の前に広がる宍道湖の美しい景観を楽しみながらも、「どうして、こんなに素敵どころが韓国にあまり紹介されていないのか」と悔しさが先走ってしまいました。その時、国際交流と国際観光に自分の青春を捧げることを心に決めたのです。

そして、私は情熱溢れる国際交流員になりました。韓国の友好都市との行政業務のみならず、さまざまな国際交流事業を企画・進行しました。また、地元の人々とのふれあいの場や祭りにも積極的に参加しました。一番記憶に残る企画は、「松江キムチフェスティバル」です。地元を代表する食フェスタと連携し、在日韓国民団島根県地方本部からの協力を得て、大きなイベントとして展開させました。県内の韓国交流員たちも参加し、キムチ作りという食文化だけではなく、韓紙工芸体験、子どもの遊び体験、韓服試着体験も設けるなど、一気に韓国文

化を市民に紹介できた事業でした。



松江キムチフェスティバルを企画（写真はそで行ったキムチ漬け込み講座）

5 年間、国際交流員として充実した日々を過ごした後も、松江をより知ってもらいたいという強い思いから、松江市観光協会で国際観光業務を 3 年間担当しました。韓国人観光客誘致のため、メディア招聘事業、ガイドブック発行事業、旅行博覧会などへの出展、情報発信、観光商品の開発やプロモーション事業などを行いました。その結果、当時殆ど認知度がなかった松江が、現在は個人の観光客もたくさん訪れる観光地となったので、自分の役割を全うできたと思っています。もちろん、今も松江市に対する愛情と関心は変わりません。

日本で過ごした 10 年という歳月で培った自分ならではのノウハウと経験が、現在就いている国際交流業務にも大変役立っています。坡州市は多くの姉妹都市がありますが、その中でも一番交流が活発なのが日本の秦野市

と佐世保市です。毎年、両市の青少年スポーツ交流団の派遣をはじめ、ホームステイ交流、日本文化体験交流、市民親善訪問、文化芸術団派遣や受け入れ、職員派遣事業など、定例行事だけでも1年があつという間に終わってしまいます。



姉妹都市である秦野市訪問団を案内
両市の青少年による英語キャンプ交流が行われる坡州英語村
を視察。

また、国際交流員の経験は業務だけではなく、プライベートでの活動にも大きな影響を与えています。2015年に帰国して以来、JETAAのメンバーとしてさまざまな活動をしてきました。JETAAと在韓日本大使館公報文化院、クリアソウルが主催する日韓交流スピーチ大会にスタッフとして参加し、抽選会の司会を務めましたが、面白いゲームやアドリブを入れたスムーズな進行でその場を盛り上げたと評価されました。これも国際交流員として、多様な舞台でマイクを握った経験のおかげだと思います。



プライベートでの活動：日韓交流スピーチ大会にJETAAスタッフとして参加

このように、国際交流員としての経験は今の私の原動力です。しかし、最近は国際交流員に臨む姿勢が就職活動の延長線としての雰囲気もあり、残念に思うときがあります。国際交流は、自分の立場や目的より、相手の立場を優先させ、オープンマインドで始めないといいません。最初から目的を達成しようとする意識が強すぎると、互いに心を開き共感を得ようとするところに障害が生じてしまいます。まず、相手を尊重する配慮やおもてなしの心を優先し、相手の文化を理解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相互信頼が構築された後には、既存の交流の維持だけではなく、お互いがさらに発展できる新しい提案もしながら模索していくべきです。

2017年、坡州市は北朝鮮のミサイルが原因で、日本側の参加者募集が難しくなり、予定された幼少年サッカー交流が中止となりましたが、成年サッカー交流という新しい交流対象を提案し、市民交流を活性化させました。このように、交流においては絶えず持続的に出会い、相互に信頼を積み上げていくことも大事です。

私はJETAAのメンバーである以上、日韓に関するさまざまな分野に微力ながら協力していくつもりです。私の人生のターニングポイントにもなった国際交流員！この記事を読まれた方を少しでも挑戦しようという気持ちにできれば嬉しいです。だんだん～

※だんだんは出雲弁で「ありがとう」を意味します。

プロフィール



林 慶真

大韓民国ソウル出身。2005年から5年間、島根県松江市に国際交流員として勤務。その後、松江市国際交流協会に3年間従事し、さらに宮崎県の木材企業に2年間従事した後、韓国に帰国。現在は京畿道坡州市総務課交流協力チームに在籍し、日本交流を担当。JETAA大韓民国支部のメンバー。趣味はミュージカル観劇。

JET LETTER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국제교류원

전 시마네현 마쓰에시 국제교류원 임경진

저는 국제교류원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청 국제교류과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파주시에서 일본과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약 13년 동안 한·일과 관련된 분야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제교류원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국제교류원이 되고자 결심을 하게 된 것은 교환학생 때 마쓰모토 NHK 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때부터였습니다.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고,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한일교류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생각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동경에서의 연수가 끝나고, 마쓰에시로 이동할 때에 느낀 감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눈 앞에 펼쳐진 신지코 호수의 아름다운 광경에 넋을 잃으면서도 “왜 이런 아름다운 곳이 한국에는 별로 소개가 되어 있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이 들어 억울했습니다. 그 순간 국제교류와 국제관광에 내 청춘을 바치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전 열정 가득한 국제교류원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호 교류 도시와의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 교류 사업을 기획, 진행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모임이나 지역축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기획은 김치페스티벌입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 페스티벌과 연계하고, 민단 시마네현 본부의 협력을 얻어 큰 축제로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현재의 한국교류원들의 협조를 얻어 김치라는 식문화 소개 및 체험뿐만 아니라, 한지공예체험, 어린이들 놀이체험, 한복 시착코너 등 한국문화 알리기에에도 일조한 행사였습니다.

그렇게 5년을 국제교류원으로 충실히 보내고도 마쓰에시를 한국에 더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마쓰에시 관광협회에서 국제관광업무를 3년간 담당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 유치업무를 담당하며 미디어 초청사업, 가이드북 발행사업, 관광설명회 전시 부스 참여, 정보발신, 관광상품 개발과 프로모션 사업 등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당시 한국에 인지도가 낮았던 곳이 현재는 개인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마쓰에에서 제 역할은 거의 다 해냈다고 자부합니다만, 20대의 청춘을 다 바친 그곳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아직도 여전합니다.

일본에서 보낸 10년이란 세월 속에 축적된 저만의 노하우와 경험이 현재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많은 자매 도시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교류를 하는 곳이 일본의 하다노시와 사세보시입니다. 매년 양 시의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비롯하여 홈스테이 교류, 일본문화체험 교류, 시민 친선방문 및 문화

예술단 파견·수용 사업, 상호 직원파견 사업 등 고령적인 사업만 해도 1년이 순식간에 흘러갑니다.

또한, 저의 국제교류 노하우와 경험은 업무뿐만 아니라 개인 활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5년에 귀국한 이래 JETAA로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JETAA와 주한 일본국대사관 공보문화원, 크레아 서울 사무소가 주최하는 한일교류 말하기 대회에 2년 연속 참여하여 추천회 사회를 담당하였는데 다양한 게임과 애드립을 섞은 맛깔스러운 진행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또한 국제교류원으로서 다양한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경험이 고스란히 발휘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에게 있어서 국제교류원으로서의 경험은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요즘 국제교류원에 임하려는 자세가 해외취업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국제교류란 본인의 입장과 목적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식이 너무 강조되면 마음의 문을 열고 상호 소통하려는 부분에서 역효과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상호 신뢰가 확립되고 나서는 기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함께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2017년에 파주시는 북핵 미사일 발사로 인해 일본 측의 모임이 저조해 예정되었던 유소년 축구 교류는 중지되었지만, 성인 축구교류라는 새로운 대상을 제안, 확대하여 시민교류의 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교류는 지속적으로 만나고 상호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JETAA로 몸담은 이상, 앞으로도 한일 국제교류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국제교류원!!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전이라는 용기를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단단!!! (단단은 시마네현 사투리로 “감사합니다”를 의미합니다.)

Profile— 임경진

대한민국 서울 출신. 2005년부터 5년간 시마네현 마쓰에시 국제교류원으로 근무. 그 후, 마쓰에시 관광협회에서 3년간 근무하고, 미야자키현의 목재 건축 회사에 2년간 근무한 후 한국에 귀국. 현재는 경기도 파주시 총무과 교류협력팀에서 일본교류를 담당. JETAA 대한민국지부 회원. 취미는 뮤지컬 관람.

韓国語